

# 전국 비구니회 갈등 '심각'

## 열린비구니 3일 기자회견... 원로 명의도용 의혹 제기

조계종 16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거에서 촉발된 전국비구니회의의 갈등이 이제는 원로 스님들의 성명서에 대한 명의도용으로까지 번졌다. 갈등의 장기화로 지치고 있다.



열린비구니 모임은 1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원로스님들의 명의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임시총회소집을 촉구했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11월 3일 뽕밭스테이 통합정보관 보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비구니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10월 30일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원로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6일 집행부·열린 측 만남

#### 임장 차 못 좁히고 결렬

라는 것 비구니 원로 스님들의 명의를 도용한 전국비구니회 제10대 집행부는 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화의 노력에 이어 없던 것은 아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열린비구니모임이 주장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자리에는 전국비구니회 정상화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비구니회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열린비구니모임 공동대표 임대 스님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명우 스님은 운영위원장 선출 관련 의혹과 원로스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해 "12명 원로스님들에게 전화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계환스님은 총회의원 선출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 온 열린비구니모임 측의 요구와 주장의 수용이 아닌 집행부 입장을 재차 밝히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신성민·아나온 기자

# 불교광장·삼화도량 '내실·결속 다지기'

## 16대 중앙총회 개원 앞두고 정책모임을 잇달아 워크숍

조계종 중앙총회 정책 모임인 불교광장과 삼화도량이 각각 워크숍을 갖고 향후 운영방향과 조직 구성을 진행했다. 16대 중앙총회 개원을 앞두고 내실 다지기와 결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 불교광장

화엄·법화·무량·금강회 재편  
회장 선임 등 조직 구성 마쳐  
5일 워크숍... 중단 현안 강의

불교광장은 11월 5일 공주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교육위원장 현응 스님의 '종단 정체성 확립과 법인관리법의 추진 및 과제'를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제34대 집행부 정책과제 및 부서별 주요 업무', 중앙총회 사무처의 '중앙총회 운영과 의사진행',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정병택 변호사의 '종헌의 이해 및 총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불교광장은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불교광장을 이끌 대표 회장에는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이 선출됐다. 이날 불교광장은 56명의 소속 중앙총회의원을 금강회와 무량회, 법화회, 화엄회 등 4개 계파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표 회장은 4개 계파를 아우르며 불교광장을 대표하고,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금강회는 지현 스님을 회장으로 14명의 중앙총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법화회와



### 삼화도량

4~6일 중국서 연수·워크숍  
직선제·교구자치 정책과제로  
"비판·견제 본연 역할 충실"

삼화도량은 11월 4~6일 중국서 연수와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5일에는 중국 연지(延吉) 대우호텔 2층 세미나룸에서 워크숍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삼화도량은 16대 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직선제와 교구자치를 골자로 한 총회 입법 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의했다.

삼화도량은 이날 워크숍에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인선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삼화도량 회장에 영담 스님, 부회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정책위원장 장명 스님, 대변인 현민 스님, 삼화연구소장 화림 스님 등이 소임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삼화도량은 16대 중앙총회 주

요 정책과제로 △총무원장 직선제 △교구자치 등을 골고루 견제와 균형이라는 중앙총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이고 종도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들을 입법활동을 통해 전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삼화도량 정책위원장 장명 스님은 "16대 중앙총회 삼화도량의 주요 정책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총무원장 간선제로는 국민들과 종도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월·도덕성을 갖춘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무대중 연대회의가 발족했고, 불교광장이 총무원장 직선제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16대 중앙총회에서는 총무원장 직선제 개정안을 통과함으로써 종도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미완의 중단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구자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구자치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사권, 재정 운영권, 재산처분권 등 주요 권한들을 교구가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오랜 역사의 산문 제도를 계승해 조계종은 교구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각 문종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화도량 소속 스님들은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임으로써 방편지혜를 얻고,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 "결사 지속될 기반 구축해야" "사건 무마한 미봉책에 불과"

## 결사추진본부, 6일 대중공사...날선 비판 이어져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의 현 주소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결사가 대중과 총무원의 간극을 더욱 벌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도법 스님은 결사를 세속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11월 6일 결사본부 3년을 평가하는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대중공사는 오는 12월 22일 '천일정진'의 회향을 앞두고 열릴 공개 대중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본부장 도법 스님, 결사총괄부장 덕산 스님을 비롯해 포교국장 노후 스님, 신도국장 덕산 스님, 김중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등 사무대중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도법 스님은 "진정한 결사는 포괄적으로 우리사회, 한국불교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찾고 만드는 일"이라며 "결사본부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중단 비판이 역할의 전부라고 보는 태도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성과와 상관없이 '화쟁'이라는 성찰을 통해 중단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중 공사와 천일정진 등에 대해서 대중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스님은 "대중공사와 천일 정진 등은 불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제를 풀어보려 한 것"이라며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종단의 실력과 역량이 부족했다. 일거리를 짚어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고 토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11월 6일 시행 3년째를 맞은 자성과쇄신결사에 대한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로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자성과 쇄신 결사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토론자로 나선 김중규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자성과 쇄신결사는 총무원을 지명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결사 이후에도 지도층은 복지부동했고, 결과 없는 결사에 대중은 무관심해졌다. 결사 시행 3년동안 조계종이 무엇이 변화했는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대중의 요구 받아들여야 결사의 대중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결사는 오히려 대중과 총무원의 간극만 벌여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법 스님은 "결사라는 개념을 세속화 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결사자금을 투입하고 꽃을 피울 수 있기 위해선 중단 정치와는 상관없이 결사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결사본부는 두 차례 대중공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무대중 공개 대중공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선학원이사회, 제2 정화운동 선언 선포

### 3일 결의... 20일 기념관 기공식

선학원이 '제2 정화운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갓가지 비리에 연루된 권승들은 즉각 조계종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3일 서울 안국동 선학원 회의실에서 재직 이사 11명 중 8명의 이사와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학원은 선언문에서 "선학원은 타락한 승려들을 중단에서 추방하고 조계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정화운동을 다시 한 번 시작함을 엄숙히 선언한다"면서 "조계종 권승들은 혼인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매수가 확인돼도 징계를 받지 않는

다. 조계종의 품도를 지적하며 급기야 승담 스님이 탈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지만 반성과 성찰은커녕 사인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하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는 또 내년 1월 2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법진·종근·종열 스님의 이사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한 감사인 현호·한복스님, 비구니 청안스님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

또한 이사회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기공식을 열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제2 정화운동을 위한 분원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2015학년도 전기

#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일반대학원

####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 학위 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 상담학 · 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 문화재학	15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2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할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3 전형일정

- 원서 교부 : 2014. 10. 27(월) ~ 2014. 11. 26(수)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원서 접수 : 2014. 11. 13(목) ~ 2014. 11. 26(수)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전형일 : 2014. 12. 3(수),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 합격자 발표 : 2014. 12. 9(화)
- 등록 기간 : 2014. 12. 29(월) ~ 2015. 1. 9(금)

####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장소 : 면접 교사실 -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
- 시간 : 2014. 12. 3.(수),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 5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석사과정 :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 대학 /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 1부.
- 최종수계증명서 (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 주민등록등본 1부
-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cm)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15.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원서대 : 무료
-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 / 석사과정 60,000원

#### 7 사정원칙

-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허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회의에서 결정함.

#### 8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봉무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전화 : 031)980-7864 / FAX : 031) 980-7863

※ 특전 : 1)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시 승가고시법시행령에 의거 3급 고시 응시 자격에 혜택이 있음.  
2) 조계종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익년4월 구족계수지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3) 학업 우수 학인을 선발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간 전액 장학 혜택부여  
4)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